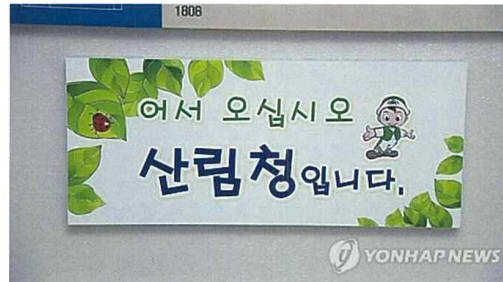


<2015.10.07.~2015.10.08.>

## 산림청 인도네시아에 '한국형 생태관광' 전수



산림청연합뉴스TV 캡처

(대전=연합뉴스) 유의주 기자 = 산림청이 인도네시아에서 '한국형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사업'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공무원과 주민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.

산림청은 오는 11~16일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주민 16명을 초청해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7일 밝혔다.

이는 2013년 인도네시아와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체결한 '인도네시아 산림보전지역 내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'의 후속 조치다.

이를 계기로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롬복섬 두낙에 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, 올해부터 조성사업에 착수했다.

이 사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교육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회씩 4년간 추진되며, 올해 이미 1차 교육(6월 7일~13일, 15명)과 2차 교육(8월 24일~28일, 31명)이 마무리됐고, 이번에 3차 교육이 진행된다.

3차 교육에는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주민들이 전북 고창 용계마을에서 한국의 생태관광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, 강원 횡성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나비를 주제로 한 자연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.

지난달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전남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와 강원도 평창에서 오는 12~16일 열리는 세계산총회도 참관하며, 대나무를 활용한 소득사업과 한국의 산림보호 기술 및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.

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'새마을 운동'도 교육과목에 포함해 자발적인 주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.

산림청 임하수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"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사업은 산림과 생태계를 보존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선순환구조의 지속가능한 산업"이라며 "이번 교육이 계기가 돼 인도네시아가 숲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,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yej@yna.co.kr

